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 수줍은 원칙주의자

두 권의 책 펴낸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교수

김종철 교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구절 중 하나는 장일순씨가 즐겨 말한 ‘불감위천하선(不敢爲天下先)’ 일 것이다. “세상사람들 앞에 감히 나서지 않는다”는 노자의 말. 그는 자발적으로 물러서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그가 출간한 두 권의 책은 이 방법을 배울 것을 호소한, 일종의 기록물이자 다큐멘터리다.



그의 오랜 스승인 고려대 김우창 교수는 “그에게는 늘 수줍음의 느낌이 있다. 그것은 근원적 수줍음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수줍음은 요지부동의 신념과 논쟁하지 않는 소극성이란 모순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이 둘을 혼동해 그를 오해하기도 한다.

요지부동의 신념과 논쟁하지 않는 수줍음

그런 점에서 21년 만에 김종철 교수(영남대 영문과)가 에세이 《간디의 물레》(녹색평론사)와 문학평론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삼인)을 펴낸 것은 대단한 사건이다. 동시에 책을 펴내 시선을 끌었다기보다 곤욕스런 일을 한번에 치르고 넘어가려는 저자의 의도가 더 큰 듯하다.

“주위의 젊은 친구들이 내 글을 복사해서 돌려보는 일이 많은데, 책을 내줬으면 하는 눈치예요. 그런 생각도 있고 《녹색평론》 구독자가 5천명이니 수치도 맞겠다는 생각도 들어 책을 냈는데, 그렇게 많이 안 팔립니다.”

김교수는 그간 책을 내지 않은 이유를 《간디의 물레》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기막힌 생태적 위기의 시대에 아까운 나무들을 대규모로 희생시키는 출판행위…” 그리고 덧붙인다.

“우리나라에서 책 내는 일은 허무해요. 하다못해 고정적인 서평란을 가진 잡지도 드물어요. 정신적인 작업을 내면적으로 들여다보고 서평을 남기는 일은 지식인이 할 일인데도 말이죠.”

한 예로 그는 《간디의 물레》 들머리에 옮긴 간디의 “참다운 문명이란 자발적 포기의 기술이다”를 “참다운 문명이란 자발적 기술의 포기다”라고 바꿔 쓴 한 신문 기사를 거론한다.

“그리곤 김아무개는 테크놀러지 반대론자라고 몰아갑니다. 이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며 유행가를 만들죠. 생태학이 도대체 뭔지 알려고 들지도 않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를 오해하는 것은 지식인들 뿐만 아니다. 《간디의 물레》를 1백쪽 가량 읽었다는 한 여성은 전화해 다짜고짜 “당신은 간디처럼 옷 한 벌로 사느냐”고 쏘아붙였다. 또 어떤 기자는 전화해 “채식주의자시죠”라며 뜬금없는 소리도 한다.

“그 중에서도 얼마 전 노동자 한 명이 보낸 편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신 정도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솔직하게 사회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면 되지 않느냐?’ 당시 정도면 권력이다, 이 말이 영 잊히지 않습니다. 제가 권력입니까?”

전선(前線)에 서는 게 권력이라면 김교수에게는 영 맞지 않는 일일 듯하다. 그가 자신도 놀랄 정도로 8년이란 긴 세월동안 꾸준히 낸 《녹색평론》을 ‘견어치워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까닭도 이 때

1947년 경남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 어렸을 때, 《제7지하호》라는 이스라엘 작가의 과학소설을 읽고 쓰레기로 인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 했다.

본격적으로 쓰레기 문제에 관심가진 것은 80년대 초반 미국 뉴욕주 버팔로 주립대학에 유학했을 때다. 그곳 러브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데, 한 교수가 걸보기에 아름답지만 지구에서 가장 오염된 강이라며 《러브 캐널》이란 책을 건넸다. 나우케미컬사가 그 강에 버린 산업쓰레기로 인해 발생한 환경질병을 추적한 논픽션이었다.

80년대 이념의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환경잡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91년 격월간 《녹색평론》을 창간했다. 초창기 독자는 1천여명. 사용한 종이는 대본소용만 화책에 쓰는 재생지. 제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식인 사이에 읽히는 잡지를 생각했지만, 지금은 농부·가정주부·성직자 등이 많다. 정기독자는 5천명 정도로 빛은 없는 상태다. 영남대 제자 등으로 이뤄진 모두 4명의 직원이 일하는 녹색평론사는 《오래된 미래》를 비롯해 모두 8종의 단행본을 출간했다.

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전위에 세우고 이상주의자란 딱지를 붙이고 싶어한다. 근원적 수줍음을 가진 그로서는 건디기 힘든 일이다.

“대책없는 이상주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쓴 책을 찬찬히 읽었다면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분단체제가 중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세계화체제가 더 무서워요. 베트남이 반식민지 투쟁했던 게 이제 모두 허사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발상을 전환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라고 못박죠.”

하지만 통근거리가 길고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우리 사정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없애자는 주장 등은 너무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닐까?

“자가용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이유 때문에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어쩔 수 없으니 자가용을 타고 다니자고 말합니까?”

최근 그는 불소논쟁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사회집단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불소논쟁은 그를 더욱 현실주의자로 만들었다. 진실은 하나지만, 서로 의견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이 논쟁은 지극히 현실적인 결과로 마무리될 듯하다. 그는 잊혀지든지 상처 속에 이길 것이다.

“나더러 전위에 선 이상주의자라고?”

이번에 비록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이란 문학평론집을 냈지만, 문학평론은 이제 그에게 꽤나 멀어졌다. 같은 대학 이동순 교수(국문과)가 시집 해설을 부탁하자, ‘그러면 책 나오기 어려울 텐데...’라고 말했다. 글재주가 있다 싶으면 소설 씁네, 시 씁네하는 학생들에게 김교수는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사람들은 주어진 길만을 가려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왔던 일, 선조가 해왔던 일에만 매달리죠. 하지만 자기 재능을 사회에 기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논픽션이나 다큐멘터리의 비중을 높게 보는 까닭은 그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상주의자’, ‘원칙주의자’라고 부르는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자신과 뜻을 함께 할 젊은 친구들이다. 하지만 스스로도 밝혔듯 ‘요즘 학생들은 종이질이 나쁘다고 《녹색평론》을 외면’ 할 정도.

“제게는 자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당장 다음호에 들어갈 원고도 제가 번역해야 할 형편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밀바탕이 돼 그런 친구들의 진지한 작업을 도울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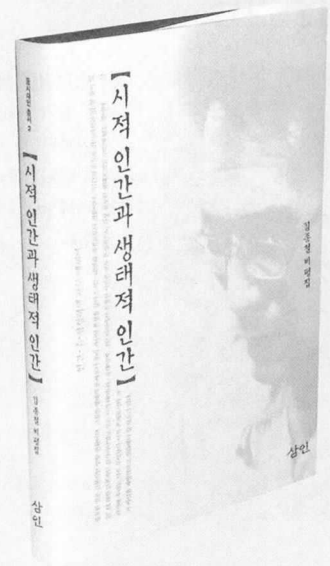
지식인의 참다운 목소리는 바로 그런 작업에서 비롯한다는 말이다. 태양을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을 없앨 수는 없다. 그가 생각하는 지식인이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양이 없다고 말해도 태양은 가려졌을 뿐, 우리 머리 위에 있다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다.

— 김연수 기자



《간디의 물레》 1999
녹색평론사/A5신/292면/7000원

이제까지 《녹색평론》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 발표하거나 강연한 글을 모았다. 생태운동의 시급함을 설명한 글에서 현재 인류의 직면한 위기상황을 서술하고 유일한 탈출구로서 생태학을 설명하는 글, 세계화·IMF·Y2K·광우병 등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등이 사라지는 제비·장일순 선생의 일화·하니 고로오의 삶 등 짧은 글과 함께 담겼다.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삼인/A5신/368면/13,000원

《시와 역사적 상상력》 이후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발표한 글과 강연한 내용을 엮었다. ‘시인은 모두 가장 심오한 생태론자’라는 그의 믿음에 어울리게 생명을 감지하는 시인의 움직임에 주시하는 평론이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문학에서 생태학으로 그를 움직이게 하는 다리역할인 <제3세계 문화의 가능성>과 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교양주의에 대해 알 수 있는 <교양 체험과 욕망의 교육> 등도 실렸다.